

외환위기 이후 가구주의 종사상지위 변화유형이 가계소득증감여부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Worker Status Change Type of the Household Heads
on Household Income Since Korean Financial Crisis

인하대학교 소비자 아동학과
교수 윤정혜
박사과정수료 송현주

Department of Consumer and Child Studies, Inha University

Professor : Jung Hai Yoon

Dissertator : Hyun-Ju Song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
| II. 관련연구의 고찰 | V. 결론 |
| III.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household head's worker status change type on household income and household head's income using a total combined sample of 2,578 households from Korea surveyed in 1998 and 2002 KLIPS(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Binary logit regression results showed that household incomes were likely to decrease significantly when household head's changed worker status from a regular employee, a temporary employee or a daily worker, or an employer or a self-employed to no job status, or from a regular employee to a temporary employee or a daily worker, an employer or a self-employed, or from an employer or a self-employed to a regular employee compared to a regular employee status maintenance. In contrast, household head's incomes were likely to increase significantly when household head's changed worker status from a temporary to a regular employee compared to a regular employee status maintenance. Women household heads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likelihood of the decrease of household head's income compared to men household heads. Household heads beyond their forties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likelihood of the decrease of household head's income compared to household heads in their thirties age-group

Corresponding Author : Jung Hai Yoon, Department of Consumer and Child Studies, Inha University, 253 Younghyun-dong, Nam-gu, Incheon, 402-751, Korea Tel: +82-32-860-8112 Fax: +82-32-865-5228 E-mail: junghai@inha.edu

* 이 논문은 인하대학교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습니다.

counterparts. Household heads with education level beyond high school graduation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the likelihood of the increase of household head's income compared to household heads with the education level of high school graduation. This study shows that a more comprehensive labor policy is needed for achieving sustainable household income inflow.

주제어(Key Words) : 외환위기(Korean financial crisis), 종사상지위 변화유형(worker status change type), 가계 소득 증감(household income increase-decrease), 가구주소득 증감(household head's income increase-decrease)

I. 서론

한국가계는 외환위기 이후 고성장·저실업 구조가 붕괴되면서 1997년 10월 실업률이 2.1% 수준에서 1999년 2월에는 8.8%까지 올라갈 정도로 초유의 대량실업을 경험하였다(통계청, 1997-1999). 이러한 대량실업은 근로자들이 하향취업, 장기실업, 구직포기, 실망실업 과정을 거치면서 가계소득의 불안정성과 감소를 초래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가계의 소득격차와 양극화는 계속 확대되었으며, 2002년을 지나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급격한 중산층 규모 감소로까지 이어지고 있다(이성림, 2009).

가구주소득은 가계의 주소득원으로서 가구주의 실직과 고용의 불안정성은 가계 구성원 전체의 문제가 된다. 따라서 고용의 불안정성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가구주의 종사상의 지위변화가 가계의 소득증감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가계의 경제적 복지 수준을 평가하는 데 중요하다.

외환위기 전후로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변화와 가계소득 증감에 대한 연구는 가계경제학, 노동경제학, 사회복지학 분야에서 주로 행해졌다. 가계경제학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 가장의 직업과 종사상지위에 따라 가계의 재무구조(성영애, 2003), 소비지출구조(소연경, 2000), 경제상태의 변화(김양희 외, 1999) 등 가구주의 종사상의 지위 변화에 따른 가계의 경제상태 변화에 따른 연구와 소득격차와 소득계층 등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윤정혜, 성영애, 1998; 이성림, 2009)로 대별된다. 노동경제학에서의 가구주의 종사상의 지위변화에 따른 가계소득관련 연구는 실업증가, 불안전 취업층 분석(유길상 외, 1998; 윤진호, 1990; 윤진호, 1998; 윤진호, 2002)과 경제위기와 노동시장의 지위변동(이성균, 2001) 등 거시적 관점에서 가계와 사회와의 관계와 국가정책방향 도출에 그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 사회복지학에서는 빈곤계층에 중점을 두어 빈곤역동성(최현수, 2002)과 빈곤층의 구성 및 사회적 특성(구인회, 2002)을 연구하면서 가구주의 종사상의 지위변화와 빈곤층 형성과의 역학관계를 주로 분석하였다.

가구주의 종사상의 지위변화는 한 시점이 아니라 일정

기간을 두고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위기를 경험한 일정기간의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의 변화, 소득증감 등을 실증분석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동일한 조사 대상에게 동일한 조사항목을 조사한 패널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가계경제학에서 패널데이터를 이용한 연구가 2000년대 들어와서 행해지고 있다(김지경, 조유현 2003; 성영애, 2003; 성영애, 2006; 성영애, 2008; 양세정, 2002).

이 연구는 한국노동패널(KLIPS) 제1차년도(1998년)와 제5차년도(2002년) 패널표본 5,000가구 중 두 시점에 가구주가 취업한 2,578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자료를 이용하여, 외환위기 이후 가구주의 종사상지위 변화유형, 인구학적 특성 및 가계취업특성이 가계소득 증감여부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가를 실증분석함으로써 외환위기의 충격이 가구주의 종사상지위 변화유형의 어느 집단, 어느 연령 집단 또는 교육수준 집단에 더 심각하게 미쳤는지를 파악하여 집단별로 가계의 경제적 복지 증진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II. 관련연구의 고찰

2.1.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변화와 가계소득 증감 연구

1997년 11월 외환위기 이후 대량실업의 급증으로 근로소득의 단절과 고용의 불안정성 등 장애소득의 불확실성, 고물가로 인한 가계소득의 감소 등의 경제환경의 변화를 겪은 후, 가계경제학, 사회복지학, 노동경제학 분야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변화와 가계소득 관련 연구가 행해졌다.

가계경제학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가장의 직업과 종사상 지위에 따라 가계의 재무구조(성영애, 2003), 소비지출구조(소연경, 2000), 경제상태의 변화(김양희 외, 1999) 등 가구주의 종사상의 지위 변화에 따른 가계의 경제상태 변화에 따른 연구와 소득격차와 소득계층 등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윤정혜, 성영애, 1998; 이성림, 2009)로 대별된다.

성영애(2003)는 대우경제연구소에서 실시한 1998년도 한국 가계패널조사자료를 기초로 “가구주 직업에 따른 연령별 가계 재무구조”를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 종사자 가계가 봉급생활자와 지역업자가계보다 수입지출상태가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유동성 비율이 낮았으며, “가구주의 직업은 가계재무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서 특히 “비정규직 종사자구의 가계재무문제가 심각함”을 실증하였다(성영애, 2003). 소연경(2000)은 “IMF 전후 도시가계의 소득계층별 소비지출구조를 비교분석”한 결과, 월평균 가계소비지출이 “저소득층은 IMF 전보다 15%, 중간소득층은 11.6%, 고소득층은 9.5%감소”하였음을 실증분석하였다(소연경, 2000). 또한 직업은 1997년도와 1998년도 가계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가계특성 변수로서 1997년 가계지출에서는 단순근로 및 노무직보다는 사무직인 경우, IMF 이후에는 사무직보다는 관리전문직인 경우 가계소비지출이 증가하였음을 밝혔다(소연경, 2000). 김양희 외(1999)의 연구에서는 남편의 “실직 전 직업 유형에 따른 실직 가정의 생활실태와 대처방식”을 살펴본 결과, “실직전에 생산/단순노무직에 종사한 가계가 사무관리직에 종사한 가계에 비해 현저하게 생활비가 감소한 경우가 많았음”을 실증분석하였다(김양희 외, 1999).

윤정혜, 성영애(1998)는 “IMF 경제위기이후 가장의 실직으로 인한 근로소득의 단절과 장래소득의 불확실성, 고물가로 인한 가계소득의 감소 등의 경제환경의 변화는 고소득층에게 자산소득의 증대를 가져다 주는 반면, 중산층 이하 가계에는 부채상환부담의 증가와 가계 파산 등의 경제적 고통을 지우는 등 소득 계층에 따라 상이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분석하였다(윤정혜, 성영애, 1998).

이성립(2009)은 경제위기 전후 가계경제의 변화를 진단하면서, 소득격차와 양극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Gini 계수로 살펴본다. 그 결과 중산층 규모의 경우 1998년 0.290에서 2002년 0.284로 나타나 경제위기로 악화된 소득격차와 양극화는 경제위기 이전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되었음을 밝혔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의 소득격차와 양극화 양상은 2002년을 기점으로 질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2002년 이전에는 소득격차는 감소하고 양극화가 심화되었으며, 반면에 2002년 이후에는 소득격차와 양극화가 모두 급진전되고 중산층 규모는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감소하였다고 실증분석하였다.

가구주의 종사상의 지위변화에 따른 가계소득관련 노동경제학 연구는 실업증가, 불안정 취업층 분석(유길상 외, 1998; 윤진호, 1990, 윤진호, 1998, 윤진호, 2002)과 경제위기와 노동시장의 지위변동(이성균, 2001) 등 거시적 관점에서 가계와 사회와의 관계와 국가정책방향 도출에 그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

유길상 외(1998)의 연구에 의하면, “1998년 현재 실업증가는 주로 일용근로자, 임시근로자 등 비정규직의 실업이 크게 증가한 데 기인하고 있으며, 고용 조정의 확산에 따라 상용근로자의 실업비중도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유길상 외 1998: p. 1). 또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임시 및 일용직으로의 취업의 비중이 점차 증가함으로써 평균적으로 고용의 질이 떨어지고 있으며, 조건부 탈출률을 볼 때 월평균 개념으로 취업으로의 총탈출자 중 75%가 임시 및 일용직이었다. 이는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고용의 질적 저하라는 희생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낳기도 한다.”고 해석하였다(유길상 외 1998: p. 41). 또한 “실업기간이 장기화되면 소득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사회적 갈등과 불안이 증폭될 수 있으며, 장기실업자의 직업 수행능력이 저하되어 인적자원이 손실될 뿐 아니라 범죄 및 자살률의 증가, 결혼거정의 증가로 사회적 병리현상이 심화되고 경제의 활력이 저하된다.”고 주장하였다(유길상 외 1998: p. 11).

윤진호(1990)는 “한국의 불안정 취업층에 관한 연구”에서 상용고과 불안정취업자 간에는 취업구조, 노동력구성, 노동이동, 임금과 소득의 수준 및 그 결정구조 등의 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있음을 밝혔다. 불안정 취업자는 실업경험이 많고, 전직회수가 많으며, 비경제활동인구로의 전락비율이 높은 등 취업의 불안정성을 겪고 있으며, 단시간 취업비율이 높았으며 또한 노동이동면에서 상용고로부터 불안정취업층으로 하강이동은 매우 활발한 반면, 불안정 취업층으로부터 상용고로의 상승이동은 매우 제한적임을 밝혔다(윤진호, 1990).

채구묵(2002)은 “IMF경제위기 이후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비정규고용이 증가했다.”고 주장하였다. “IMF 금융지원 받는 과정에서 선진국들은 자본투자의 선결과제로 노동유연화 정책 채택을 요구했고, 기업도 노동유연성 정책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으며 정부도 이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노동유연화 정책을 도입”하게 되었다고 설명하였다(채구묵, 2002). 이성균(2001)은 “경제위기와 노동시장 지위변동” 연구에서 “노동시장 지위변동 가운데 가장 적게 나타난 유형은 자본가계급범주와 비자본가계급주를 뛰어넘는 이동이며, 가장 빈번히 나타나는 노동시장 지위변화유형은 안정적 취업자와 불안정 취업자의 노동이동”임을 실증분석하였다(이성균, 2001). 또한 “노동시장에서 고용불안정성을 설명하는 노동유연성의 강화는 계급적인 함의를 가져, 일정기간 동안 불안정한 취업상태에 있던 노동계급이 안정적 노동계급으로 변화할 가능성은 불안정 중간계급이 고용안정성을 회복할 가능성보다 더욱 낮다.”고 해석하였다(이성균, 2001).

사회복지학연구는 빈곤계층에 중점을 두어 빈곤역동성

(최현수, 2002)과 빈곤층의 구성 및 사회적 특성(구인회, 2002)의 관계와 가구주의 종사상의 지위변화와 빈곤층 형성과의 역학관계를 주로 분석하였다.

최현수(2002)는 경제위기 이후 근로빈곤층의 빈곤역동성 및 빈곤기간에 대한 실증적 분석에서 가구주의 고용상태를 비빈곤, 단기빈곤, 장기빈곤으로 유형화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비빈곤가구의 경우 사무직 또는 생산직 상용근로자의 비율이” 높았고, “단기빈곤의 경우 생산직 상용근로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을 파악하였다. 반면에 장기빈곤의 경우 생산직 임시·일용직의 비율이 비빈곤가계의 약 14배에 해당하는데, “이것은 경제 위기 직후 확대되기 시작한 고용상태의 불안정이 빈곤의 장기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분석하였다(최현수, 2002).

구인회(2002)는 경제위기 이후 빈곤층의 구성 및 사회적 경제적 특성을 살펴보면, “1997년 경제위기 직후의 빈곤은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이 다수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근로능력이 없는 취업집단이 주류를 이루었던 경제위기 이전의 빈곤층과 구별된다.”고 주장하였다(구인회, 2002). “1998년 완전 취업층 중 적지 않은 수가 빈곤선 이하의 삶을 살았고, 1999년에도 이들의 빈곤상태가 큰 변화가 없”었는데, “이들 빈곤의 주된 원인은 저임금과 고용불안정에 있다.”고 설명하였다(구인회, 2002). “1998년 시점에서 가구주가 주평균 40시간 이상의 완전취업상태에 있는 가구에 속한 개인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빈곤률을 보인 반면, 가구주가 주평균 40시간 미만 일한 부분 취업상태에 있거나 미취업상태에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빈곤률을 보였다”(구인회, 2002).

2.2.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과 가계소득 증감 연구

가계경제학과 사회복지학, 노동경제학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이 가계소득, 부채, 자산 등 가계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성별(강이주, 성영애, 1999; 유길상 외, 1998; 윤진호 1990; 이성균, 2001; 장지연, 2001; 최현수, 2002), 연령(소연경, 2000; 유길상 외, 1998; 윤진호, 1990; 최현수, 2002), 교육수준(소연경, 2000; 유길상 외, 1998; 윤진호, 1990)이 주요 설명변수로 나타났다.

1) 성별

성별과 가계소득과의 관계를 고찰한 선행연구를 결과를 살펴보면, 대다수의 연구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부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한 환경에서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렵고(강이주, 성영애, 1999),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은 불안정 취업층을 차지하였으며(윤진호, 1990; 이성균, 2001; 장지연, 2001), 여성가

구주가 장기간 빈곤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았다(최현수, 2002). 반면에 유길상 외(1998)는 여성보다 남성의 실업 탈출률이 점차 떨어지고 이에 따라 실업기간이 보다 장기화되어 가고 있음을 실증분석하였다.

강이주와 성영애(1999)의 연구에서는 “가계소득감소 경험여부가 가계의 경제적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는데, “소득감소경험여부에 따라 가족원의 소득창출 노력 정도는 더 높게 나타나”는데 반하여, “주부의 소득창출 노력은 차이가 나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더욱 심해진 가운데 특히 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진입의 어려움을 반영한 결과”라고 해석하였다(강이주, 성영애, 1999).

윤진호(1990)는 불안전취업층의 여성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장지연(2001)은 “비정규직 노동의 실태와 쟁점을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 남성근로자의 경우 정규직 상용근로자가 전체의 52%, 장기임시근로자가 27%인데 비해서, 여성은 정규직 상용근로자가 27%, 장기임시근로자가 52%로 나타나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별 구성에서 성별차이가 뚜렷이 드러난다.”고 분석하고, “여성정규근로자의 분포와 특성을 살펴 볼 때, 개별 근로자의 인적자본에 따라 정규/비정규가 결정된다기 보다는 일 자리에 따라서 구조적으로 결정된다.”고 설명하였다(장지연, 2001).

이성균(2001)은 “노동시장의 지위변동은 성별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여, 중간계급의 하향화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확대되고 있으며, 취업자에서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로의 전환도 여성에게 일반화된 추세”라고 분석하였으며 “결국 한국사회도 경제위기를 계기로 노동유연성이 강화되고 있으며 고용불안정성의 문제도 개인이 유지해 오던 계급적 지위와 성을 매개로 상이하게 나타났다.”고 해석하였다(이성균, 2001).

최현수(2002)의 연구에서는 경제위기 이후 도시노동자 가구의 빈곤경험기간에 따라 비빈곤, 단기빈곤, 장기빈곤으로 나누어 가구주 성별을 살펴본 결과, “장기빈곤가구의 여성가구주 비율은 비빈곤 및 단기빈곤가구와 달리 매우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것은 “여성 가구주일수록 장기간 빈곤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빈곤의 여성화 현상을 보여주는 결과로서, 여성 빈곤가구를 대상으로 특화된 정책적 접근이 요구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하였다(최현수, 2002).

반면에 유길상 외(1998)의 연구에서는 실업으로의 탈출률을 살펴볼 때 “여성보다는 남성의 탈출률이 점차 떨어지고 이에 따라 실업기간이 보다 장기화 되어 간다.”고 실증분석하였다(유길상 외, 1998: p. 41).

2) 연령

가계소득 증감에 연령이 미치는 영향은 크게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이 감소한다는 연구(유길상 외, 1998; 윤진호, 1990)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연구(최현수, 2002)로 대별된다.

윤진호(1990)는 한국의 불안정 취업층의 “노동력 구성면에서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밝혔다(윤진호, 1990). 유길상 외(1998)도 동일하게, 실업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실업으로의 탈출률을 살펴볼 때 “청소년보다는 핵심 연령층의 탈출률이 점차 떨어진다.”고 설명하였다(유길상 외, 1998: p. 41). 또한 소연경(2000)은 “도시가계의 소득계층별 소비지출 구조를 IMF 이전과 이후 비교분석”하였는데, “가구주 연령이 많을수록 가계소비지출이 증가한다.”고 실증분석하였다(소연경, 2000). 반면에 최현수(2002)의 연구에 의하면, 경제위기 이후 도시노동자가구의 경우 가구주의 연령은 장기빈곤 가구일수록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최현수, 2002).

3) 교육수준

교육수준과 소비지출과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소연경, 2000)와 실업 등 불안정 취업과의 관련 연구(유길상 외, 1998; 윤진호, 1990)가 주류를 이루었다. 소연경(2000)은 도시가계의 소득계층별 소비지출 구조를 IMF를 전후로 비교분석하였는데, 가구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계소비지출이 증가하였다(소연경, 2000).

한편 교육수준과 실업, 불안정취업 등 종사상 지위와의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유길상 외(1998)의 연구에서는 1998년 현재 “실업자의 학력별 구성을 보면 중졸이하의 저학력계층의 실업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실업의 고통이 저학력계층에게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유길상 외, 1998: p. 26). 윤진호(1990)의 연구결과도 상용고에 비하여 불안정 취업자의 경우 학력이 상대적으로 저학력자가 밀집되어 있음을 실증분석하였다.

Ⅲ.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3.1. 연구문제

이 연구에서 설정한 구체적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P1. 외환위기 이후 가구주의 종사상지위 변화유형의 특징은 어떠한가?
 P2. 외환위기 이후 가구주의 종사상지위 변화유형에 따른 가계소득과 가구주소득의 차이는 어떠한가?

P3. 외환위기 초기의 가구주의 종사상의 지위별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외환위기 이후의 가계소득과 가구주소득의 차이는 어떠한가?

P4. 외환위기 이후의 가계소득 증감여부와 가구주소득 증감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가구주의 종사상지위 변화유형, 가계취업특성,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 중 어떤 것들인가?

3.2. 연구방법

3.2.1. 자료

이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한국노동패널(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이하 'KLIPS'라 함) 제 1차년도(1998년) 자료와 제 5차년도(2002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KLIPS는 한국의 가구와 가구원을 대표하는 패널표본(5,000 가구에 거주하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 이동, 소득활동 등에 대해 추적 조사하는 종단면 조사(longitudinal survey)이다. KLIPS 자료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개인의 정보와 가구의 정보를 제공한다. 이 자료는 이 연구에서 필요로 하는 가구주 개인의 인적 정보, 종사상지위, 소득정보는 물론 가구주가 속한 가구의 가계소득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외환위기 이후의 가구주의 종사상지위 변화유형에 따른 가계소득 증감을 분석하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분석대상을 추출하기 위해 우선 KLIPS 1차년도(1998년) 자료에서 취업한 가구주를 추출하고, 추출된 가구주 중에서 5차년도(2002년) 조사에도 응답한 이들을 추출하여 총 2,578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3.2.2. 변수

1) 독립변수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들에 기초하고 표본수와 변수의 영향력 정도를 고려하여 실증연구를 위한 분석변수를 선정하였다. 가구주 인구학적 변수로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을 선정하였고, 가계취업특성 변수로는 가구내 취업자수, 가구주 종사상지위 변화유형을 선정하였다. 변수의 조작적 정의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을 위해 가구주 인구학적 특성 변수들을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다. 성별의 경우 남자 = 1, 여자 = 2로 측정되어 있던 자료를 여자 = 0, 남자 = 1로 재부호화하였으며, 가구주 연령은 연속변수로 측정되어 있던 자료를 30~39세는 0, 그 이외의 연령대들은 1로 재부호화하였다. 가구주 교육수준은 고졸은 0, 그 이외는 1로 재부호화하였다. 가계취업특성 변

〈표 1〉 변수의 조작적 정의

구분	변수	변수값	
인구학적특성	가구주 성별	(가변수) 0. 여자, 1. 남자	
	가구주 연령	(연속변수) 1998년 만나이	
	가구주 연령범주	(가변수) 0. 30~39세, 1. 29세 이하, 1.40~49세, 1.50~59세, 1.60세 이상	
	가구주 교육수준	(연속변수) 1998년 교육연수	
	가구주 교육범주	(가변수) 0. 고졸 1. 중졸 이하, 1. 전문대졸 이상	
	가구 취업자수	(연속변수) 명	
	가구 취업자수 증감	(가변수) 0. 감소, 1. 증가	
독립변수	가구주 종사상지위 변화유형	(가변수) G11. 상용고 유지(0) G12. 1998년 상용고→2002년 임시·일용고 G13. 1998년 상용고→2002년 고용주·자영업자 G10. 1998년 상용고→2002년 비취업 G21. 1998년 임시·일용고→2002년 상용고 G22. 임시·일용고 유지 G23. 1998년 임시·일용고→2002년 고용주·자영업자 G20. 1998년 임시·일용고→2002년 비취업 G31. 1998년 고용주·자영업자→2002년 상용고 G32. 1998년 고용주·자영업자→2002년 임시·일용고 G33. 고용주·자영업자 유지 G30. 1998년 고용주·자영업자→2002년 비취업	
		가계소득	(연속변수) · 1998년 실질가구소득 = 월평균 가계소득×(CPI2000/CPI2002) = 월평균 가계소득×(100/97) · 2002년 실질가구소득 = 월평균 가계소득×(CPI2000/CPI2002) = 월평균 가계소득×(100/106.9) * 기준년도: 2000년
			가계소득변수
		가구주소득	(연속변수) · 1998년 실질가구주소득 = 월평균 가구주소득×(CPI2000/CPI2002) = 월평균 가구주소득×(100/97) · 2002년 실질가구주소득 = 월평균 가구주소득×(CPI2000/CPI2002) = 월평균 가구주소득×(100/106.9) * 기준년도: 2000년
			가구주소득변수
		가계소득 증감	(가변수) · 가계소득배율 = (2002년 가계소득/1998년 가계소득)×100 0. 감소 (가계소득배율 < 100.0) 1. 증가 (가계소득배율 ≥ 100.0)
			가계소득 증감
		가구주소득 증감	(가변수) · 가구주소득배율 = (2002년 가구주소득/1998년 가구주소득)×100 0. 감소 (가구주소득배율 < 100.0) 1. 증가 (가구주소득배율 ≥ 100.0)
			가구주소득 증감

수들 중 가구내 취업자수는 1998년과 2002년을 비교하여 취업자수가 유지 또는 감소이면 0, 증가이면 1로 범주화하였다. 이 연구에서의 주요변수인 가구주 종사상지위 변화유형은 우선 1998년의 종사상지위와 2002년의 종사상지위를 고려하여 12개 유형을 설정하였다. 그리고 1998년과 2002년 모두 상용고 유지이면 0을 부여하고 나머지 유형은 1을 부여하여 가변수로 처리하였다.

정된 가계소득과 가구주소득으로 두 시점의 소득을 단순히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물가지수(CPI, 2000년도 기준)를 반영하여 각 연도의 실질가계소득과 실질가구주소득을 산출하였다. 1998년 대비 2002년의 실질소득의 소득배율에 100을 곱하여 가계소득배율과 가구주소득배율을 구하였다. 가계소득배율과 가구주소득배율이 100 미만이면 감소(0), 100 이상은 증가(1)로 처리하였다.

2) 종속변수

이 연구의 종속변수인 가계소득은 구체적으로는 가계소득과 가구주소득으로 구성된다. 1998년과 2002년에 측

3.2.3. 분석방법

분석대상의 외환위기 이후 전반적 종사상지위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1998년과 2002년 종사상지위 변화유형을

〈표 2〉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 = 2,578)

변수	항목	% (N)
성별	남자	90.6(2,336)
	여자	9.4(242)
1998년 연령(세)	29 이하	7.4(191)
	30~39	32.7(843)
	40~49	31.2(805)
	50~59	19.5(502)
	60 이상	9.2(237)
	M(SD)	10.8(43.7)
1998년 교육수준	중졸 이하	33.2(856)
	고졸	41.9(1,079)
	전문대졸 이상	24.9(643)
	M(SD)	3.8(11.2)
가구 내 취업자수 증감	증가	71.1(1,832)
	감소	28.9(746)
	1998년 M(SD)	0.72(1.58)
	2002년 M(SD)	1.07(2.68)
가계소득 증감	증가	68.7(1,770)
	감소	31.3(808)
	1998년 M(SD)	128.92(165.01)
	2002년 M(SD)	211.03(226.71)
가구주소득 증감	증가	58.2(1,500)
	감소	41.8(1,078)
	1998년 M(SD)	100.80(134.37)
	2002년 M(SD)	152.51(175.10)

교차분석으로 비교하였고, 가구주의 종사상지위 변화유형과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외환위기 이후 가계소득과 가구주소득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2002년 가계소득과 가구주소득을 종속변수로 하여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가계소득 증감과 가구주소득증감을 종속변수로, 가구주 인구학적 특성과 가계 취업 특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외환위기 이후 가계소득 증감의 영향요인을 이항로짓분석(binary logit analysis)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자료처리는 SAS 9.0을 이용하였으며, 분석은 PASW 17.0을 이용하였다.

3.3.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분석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대상 가구주의 90.6%가 남자였으며, 1998년 당시 평균 연령은 43.7세로 30대와 40대 가구주는 각각 32.7%, 31.2%였으며, 60세 이상의 고령자 가구주는 9.2%, 20대 가구주는 7.4%였다. 가구주의 평균교육연수는 11.2년이며 41.9%의 가구주가 고졸의 학력이었다. 외환위기 이후인 2002년의 분석대상 가구의 취업자수는 평균 1.6명이며 1998년에 비해 취업자수가 증가한 가구가 71.1%, 감소한 가구는 28.9%이었다. 2002년 분석대상 가구 전체의 가계소득은 226.71만원으로 외환위기 이전인 1998년에 비해 가계소득이 증가한 가구가 전체의 68.7%이었다. 2002년 가구주소득은 175.10만원이었으며 가구주소득이 증가한 가구는 분석대상 가구의 58.2%이었다.

IV. 연구결과

4.1 외환위기 이후 가구주의 종사상지위 변화유형의 특징

1998년 상용고의 74.7%, 고용주·자영업자의 73.2%의 가구는 동일한 종사상지위를 2002년에도 유지하고 있었다. 반면에 1998년 종사상지위가 임시·일용고이었던 가구주는 47.1%만이 계속 임시·일용고를 유지하고 있었다.

외환위기 이후 가구주의 종사상지위의 변화유형의 실태를 〈표 3〉에 제시하였다. 1998년 취업상태에서 2002년 비취업 상태로의 이동 비율은 1998년 임시·일용고의 22.3%, 고용주·자영업자의 12.0%, 상용고의 10.0% 순으로 높았다.

1998년의 상용고의 10.8%가 2002년에 고용주·자영업자로, 4.5%가 임시·일용고로 이동하였다. 1998년의 임시·일용고의 20.6%가 2002년에 상용고로 이동하였고, 10%가 고용주·자영업자로 이동하였다. 1998년의 고용주·자영업자의 9.8%가 2002년에 상용고로, 5.0%가 임시·일용고로 이동하였다.

〈표 3〉 외환위기 이후 가구주의 종사상지위 변화유형 실태

(N = 2,578)

	1998년	2002년				
		상용고	임시·일용고	고용주·자영업자	비취업	
상용고	% (N)	100.0 (1,293)	74.7 (966)	4.5 (58)	10.8 (140)	10.0 (129)
임시·일용고	% (N)	100.0 (291)	20.6 (60)	47.1 (137)	10.0 (29)	22.3 (65)
고용주·자영업자	% (N)	100.0 (994)	9.8 (97)	5.0 (50)	73.2 (728)	12.0 (119)
계	% (N)	100.0 (2,578)	43.6 (1,123)	9.5 (245)	34.8 (897)	12.1 (313)

〈표 4〉 가구주의 종사상지위 변화유형에 따른 가계소득의 차이

(N = 2,578)

	구분	2002년				
		계	상용고	임시·일용고	고용주·자영업자	비취업
1998년 상용고	종사상지위 변화유형		G11	G12	G13	G10
	%(N)	100.0(1,293)	74.7(966)	4.5(58)	10.8(140)	10.0(129)
	2002년 가계소득 (M(SD))(단위: 만원)	245.83(167.03)	257.84(154.00)	162.38(107.18)	275.79(237.98)	60.86(153.93)
	2002년 총평균과의 격차		12.01	83.45	29.96	84.97
	종사상지위 변화유형 G10~G13내 가계소득순위		2	3	1	4
	DMR ^a F비		b	a	b	a
	전체 유형 중 가계소득 순위		2	9	1	10
1998년 임시· 일용고	종사상지위 변화유형		G21	G22	G23	G20
	%(N)	100.0(291)	20.6(60)	47.1(137)	10.0(29)	22.3(65)
	2002년 가계소득 (M(SD)) (단위: 만원)	162.51(197.41)	191.63(167.10)	176.44(243.40)	180.48(155.83)	98.27(94.00)
	2002년 총평균과의 격차		29.12	13.93	17.97	-64.24
	종사상지위 변화유형 G20~G23내 가계소득순위		1	3	2	4
	DMR F비		b	b	b	a
	*전체 유형 중 가계소득 순위		6	8	7	12
1998년 고용주· 자영업자	종사상지위 변화유형		G31	G32	G33	G30
	%(N)	100.0(994)	9.8(97)	5.0(50)	73.2(728)	12.0(119)
	2002년 가계소득 (M(SD)) (단위: 만원)	220.63(257.24)	197.48(103.15)	147.51(106.35)	231.06(232.08)	206.41(456.14)
	2002년 총평균과의 격차		-23.15	-73.12	10.43	-14.22
	종사상지위 변화유형 G30~G33내 가계소득순위		3	4	1	2
	DMR F비		ab	a	b	ab
	전체 유형 중 가계소득 순위		5	11	3	4

a, DMR: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 < .05, ***p < .001.

4.2 외환위기 이후 가구주의 종사상지위 변화유형에 따른 가계소득의 차이

외환위기 이후 가구주의 종사상지위 변화유형에 따른 가계소득과 가구주소득의 차이를 〈표 4〉와 〈표 5〉에 제시하였다.

1998년 상용고의 2002년 가계소득이 246만원, 1998년 고용주·자영업자의 2002년 가계소득이 221만원, 1998년 임시·일용고의 2002년 가계소득이 163만원 순으로 높았다.

가구주 종사상지위 변화유형별 가계소득은 다음과 같다. 1998년 상용고의 경우, G13과 G11은 1998년 상용고 총평균보다 각각 30만원, 12만원 높았으며, 전체 순위 1, 2위로 최상위 수준을 차지하였다. 반면에 G12, G10은 1998년 총평균보다 각각 83만원, 85만원 낮았으며, 네 유형 중 3, 4위였으며, 전체 순위로는 9, 10위로 낮았다.

1998년 고용주·자영업자의 경우 G33은 1998년 고용주·자영업자 총평균보다 10만원 정도 높았으며 네 유형 중에서는 1위, 전체 순위로는 3위였다. 한편 1998년에 고용주·자영업자였다가 2002년에 가구주가 일자리를 잃은 G30은 총평균보다 14만원 낮았으나 전체 유형 중에서는 4위에 머물렀다. 1998년 임시·일용고의 경우 2002년에 일자리

를 잃은 G20의 가계소득은 98만원으로 총평균보다 64만원 낮았으며, 전체 유형 중에서 최하위인 12위였다.

1998년 상용고에서 2002년에 고용주·자영업자로 이동한 G13의 가구주소득은 1998년 상용고 총평균보다 48만원 높았으며, 세 유형 중 1위, 전체 유형 중 최상위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1998년 상용고에서 2002년에 임시·일용고로 이동한 G12의 가구주소득은 1998년 상용고 총평균보다 86만원 낮았으며 네 유형 중 3위, 전체 유형 중 최하위를 차지하였다.

1998년-2002년 고용주·자영업자를 유지한 G33은 1998년 고용주·자영업자 총평균보다 10만원 높았으며, 세 유형 중 1위, 전체 유형 중 제2위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1998년 가구주가 고용주·자영업자에서 2002년에 임시·일용고로 이동한 G33의 가구주소득은 1998년 고용주·자영업자 총평균보다 80만원 낮았으며, 세 유형 중 3위, 전체유형 중 8위를 차지하였다.

1998년 임시·일용고에서 2002년에 고용주·자영업자로 이동한 G23의 가구주소득은 1998년의 임시·일용고 총평균보다 57만원 높았으며, 세 유형 중 1위, 전체 유형 중 제4위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1998년-2002년 가구주가 임시·일

〈표 5〉 가구의 중상상 지위 변화유형에 따른 가구주소득의 차이

(N = 2,578)

구분		계	2002년 상용고	2002년 임시·일용고	2002년 고용주·자영업자
1998년 상용고	중상상지위 변화유형 %(N)	100.0(1164)	G11 82.99(966)	G12 4.98(58)	G13 12.03(140)
	2002년 가구주소득 (평균(SD)) (단위: 만원)	181.74(118.24)	180.31(91.42)	96.24(49.87)	230.20(236.51)
	총평균(180.13)과의 차이		-1.43	-85.5	-48.46
	중상상지위 변화유형 G10~G13내 순위		2	3	1
	DMR ^a F비		b	a	c
전체 유형 중 순위			3	9	1
1998년 임시· 일용고	중상상지위 변화유형 %(N)	100.0(226)	G21 26.55(60)	G22 60.62(137)	G23 12.83(29)
	2002년 가구주소득 평균(S.D.) (단위: 만원)	121.83(84.46)	120.61(51.70)	110.78(52.51)	178.98(189.75)
	총평균(180.13)과의 차이		-1.22	-11.05	57.15
	중상상지위 변화유형 G20~G23내 순위		2	3	1
	DMR F비		a	a	b
전체 유형 중 순위			6	7	4
1998년 고용주· 자영업자	중상상지위 변화유형 %(N)	100.0(875)	G31 11.09(97)	G32 5.71(50)	G33 83.2(728)
	2002년 가구주소득 평균(S.D.) (단위: 만원)	180.13(199.97)	148.17(91.04)	99.88(59.96)	190.58(215.59)
	총평균(180.13)과의 차이		-31.96	-80.25	10.45
	중상상지위 변화유형 G30~G33내 순위		2	3	1
	DMR F비		ab	a	b
전체 유형 중 순위			5	8	2

주. 2002년 비취업 가구주(G10, G20, G30)들의 경우 (N = 313) 가구주소득은 결측값이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a. DMR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 < .01. *p < .001.

용고를 유지한 G22의 가구주소득은 1998년 임시·일용고 총평균보다 11만원 낮았으며 세 유형 중 3위, 전체 유형 중 7위를 차지하였다.

4.3. 1998년 가구의 중상상의 지위별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외환위기 이후 가계소득과 가구주소득의 차이

1998년 가구가 속한 중상상지위별로 가구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외환위기 이후 가계소득과 가구주소득의 차이를 〈표 6〉과 〈표 7〉에 제시하였다. 가구주 성별에 따른 2002년 가계소득과 가구주소득의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가구의 2002년 가계소득과 가구주소득 모두 여성가구의 가계소득과 가구주소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현실적으로 남성에 비해 여성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낮은 임금수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가구주 연령에 따른 가계소득의 차이를 보면, 1998년 전체 가계와 상용고의 경우 60세 이상 가계소득이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29세 이상 가계소득이 낮았다. 반면에 30세 이상 59세 이하 가계소득이 가장 높았다. 1998년 고용주·자영업자의

경우 60세 이상 가계소득이 59세 이하 가계소득보다 낮았다.

가구주 연령에 따른 가구주소득의 차이를 보면, 1998년 전체가계의 경우 60세 이상 가계소득이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50대의 가계소득이 낮았으며, 3·40대의 가계소득이 가장 높았다. 1998년 중상상지위별 각 집단에서 모두 60대 이상 고령자의 가계소득이 가장 낮았다.

가구주 교육수준에 따른 가계소득과 가구주소득의 차이를 보면, 1998년 전체가계의 경우 전문대졸이상, 고졸, 고졸미만의 순으로 가계소득과 가구주소득이 높았다.

4.4. 외환위기 이후 가구의 중상상지위 변화유형과 인구학적 특성이 가계소득 증감여부와 가구주소득 증감여부에 미치는 영향

외환위기 이후 가구의 중상상지위 변화유형과 인구학적 특성과 가계소득 증감여부와 가구주소득 증감여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항로지분분석결과를 〈표 8〉에 제시하였다. 가계소득 증감여부 로짓모형과 가구주소득 증감여부 로짓모형의 -2Log우도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두 모형의

〈표 6〉 1998년 가구주의 종사상의 지위별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외환위기 이후 가계소득(2002년)의 차이 (N = 2,578)

구분	1998년 전체			1998년 상용고			1998년 임시·일용고			1998년 고용주·자영업자			
	M	(SD)	DMR ^a	M	(SD)	DMR	M	(SD)	DMR	M	(SD)	DMR	
성별	남성	236.88	(213.05)	252.12	(165.16)		182.30	(213.16)		230.51	(262.08)		
	여성	128.55	(160.49)	158.67	(169.42)		84.70	(78.47)		128.20	(183.22)		
	<i>t</i>	9.656***			4.977***			5.633***			4.956***		
연령	29세 이하	196.29	(123.79)	b	194.75	(130.50)	b	139.70	(34.52)		224.71	(102.10)	b
	30~39세	242.38	(183.76)	c	251.55	(161.83)	c	194.49	(167.20)		237.12	(224.03)	b
	40~49세	245.01	(188.56)	c	263.99	(168.67)	c	181.89	(287.60)		239.99	(171.55)	b
	50~59세	227.10	(266.87)	c	262.77	(194.74)	c	147.20	(121.32)		225.41	(336.25)	b
	60세 이상	132.50	(263.58)	a	132.59	(117.59)	a	95.65	(98.23)		142.11	(321.52)	a
	<i>F</i> 비	15.833***			11.270***			1.987			4.266**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67.34	(190.65)	a	179.78	(137.25)	a	150.61	(232.89)		165.97	(201.34)	a
	고졸	233.94	(203.97)	b	224.54	(145.05)	b	178.08	(136.35)		235.09	(274.42)	b
	전문대졸 이상	310.38	(211.03)	c	311.03	(185.42)	c	183.37	(120.05)		320.69	(300.41)	c
	<i>F</i> 비	90.358***			67.007***			.726			23.794***		

a. DMR =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 < .01. *p* < .001.

〈표 7〉 1998년 가구주의 종사상 지위별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외환위기 이후 가구주소득(2002년)의 차이 (N = 2,578)

구분	1998년 전체			1998년 상용고			1998년 임시·일용고			1998년 고용주·자영업자			
	M	(SD)	DMR ^a	M	(SD)	DMR	M	(SD)	DMR	M	(SD)	DMR	
성별	남성	181.38	(154.07)		185.51	(117.75)		134.31	(85.73)		186.94	(204.09)	
	여성	80.70	(96.15)		106.57	(102.56)		55.86	(29.20)		96.37	(110.41)	
	<i>t</i>	10.620***			5.528***			5.347***			5.668***		
연령	29세 이하	168.34	(86.94)	bc	165.91	(80.94)	bc	140.32	(35.28)	b	224.71	(119.36)	bc
	30~39세	193.35	(134.42)	c	195.02	(137.46)	b	151.15	(68.08)	b	237.12	(140.59)	bc
	40~49세	191.86	(182.22)	c	188.41	(100.89)	bc	113.30	(54.91)	ab	239.99	(262.86)	c
	50~59세	144.01	(145.91)	b	150.16	(103.99)	b	107.669	(131.21)	ab	225.41	(176.58)	b
	60세 이상	78.32	(102.85)	a	84.23	(108.18)	a	64.26	(35.17)	a	142.11	(107.75)	a
	<i>F</i> 비	23.910***			9.060***			4.480**			11.502**		
교육 수준	고졸미만	114.77	(94.68)	a	114.20	(66.87)	a	107.11	(98.62)	a	165.97	(109.03)	a
	고졸	177.15	(170.99)	b	167.65	(121.89)	b	138.58	(63.07)	b	235.09	(235.52)	b
	전문대졸 이상	240.99	(145.30)	c	234.97	(111.88)	c	132.66	(55.63)	c	320.69	(216.63)	c
	<i>F</i> 비	115.087***			95.958***			3.779*			32.851***		

a. DMR=Duncan's Multiple Range Test
 p* < .05. *p* < .01. ****p* < .001.

로짓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소득 증감여부 로짓모형은 Nagelkerke R²이 11.5%이었으며 가구주소득 증감여부 로짓모형의 Nagelkerke R²은 34.2%로 가계소득 증감여부 로짓모형보다 설명력이 22.7% p. 증가하였다.

4.4.1. 외환위기 이후 가구주의 종사상지위 변화유형과 인구학적 특성이 가계소득 증감여부에 미치는 영향

다른 변수를 통제했을 때 가구주의 종사상지위 변화유형이 가계소득 증감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1998년 상용고, 임시·일용고, 고용주·자영업자에서 2002년 비취업자

가 된 유형(G10, G20, G30)의 가계소득이 1998년 - 2002년 상용고를 유지한 유형(G11)에 비하여 유의하게 감소할 가능성이 높았다. 1998년 상용고에서 2002년에 임시·일용고로 이동한 유형(G12)이 상용고유지 유형(G11)에 비하여 가계소득이 유의하게 감소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일자리를 잃은 단기 실업자, 실업의 장기화로 인한 구직을 단념한 실망근로자로의 변화와 상용고에서 임시·일용고로의 고용의 불안정화가 가계소득의 감소 가능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가구주의 종사상지위가 1998년 상용고에서 2002년에 고용주·자영업자로 이동(G13)했거나 1998년에서 2002년에 고

〈표 8〉 외환위기 이후 가구주의 종사상지위 변화유형과 인구학적 특성이 가계소득 증감여부와 가구주소득 증감여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항로짓분석 결과

(N = 2,578)

	가계소득 증감여부	가구주소득 증감여부
	β (s.e)	β (s.e)
가구주 인구학적특성		
가구주 성별		
여자(0)		
남자	.022(.157)	.377(.178)*
가구주 연령(세)		
30-39(0)		
29 이하	.175(.198)	.527(.216)*
40-49	-.316(.120)**	-.190(.116)
50-59	-.504(.136)***	-.754(.139)***
60 이상	-.734(.176)***	-.904(.200)***
가구주 교육수준		
고졸(0)		
중졸 이하	.066(.112)	-.070(.116)
전문대졸 이상	.272(.120)*	.330(.123)**
가계취업특성		
가계 취업자수 증감		
감소(0)		
증가	.662(.100)***	
가구주 종사상지위 변화유형		
G11.상용고 유지(0)		
G12.상용고 → 임시·일용고	-1.151(.280)***	-1.519(.297)***
G13.상용고 → 고용주·자영업자	-.470(.204)*	-.270(.196)
G10.상용고 → 비취업	-1.282(.203)***	-21.924(3448.421)
G21.임시·일용고 → 상용고	-.092(.316)	.743(.340)*
G22.임시·일용고 유지	.024(.221)	-.187(.198)
G23.임시·일용고 → 고용주·자영업자	-.207(.432)	-.114(.404)
G20.임시·일용고 → 비취업	-1.020(.279)***	-21.441(4925.960)
G31.고용주·자영업자 → 상용고	-.789(.227)**	-.465(.225)*
G32.고용주·자영업자 → 임시·일용고	-.392(.318)	-.132(.311)
G33.고용주·자영업자 유지	-.477(.119)***	-.098(.115)
G30.고용주·자영업자 → 비취업	-.815(.214)***	-21.649(3615.241)
상수	.877(.196)***	.620(.208)**
-2Log우도	2985.671	2748.826
χ^2	220.386***	755.651***
Nagelkerke R ²	.115	.342

주. 가구주소득 증감여부를 종속변수로 한 이항로짓 모형에서는 순수히 가구주의 소득 증감여부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보기 위해 가계취업특성인 가계취업자수 증감은 모형에 투입되지 않았음.

* $p < .05$. ** $p < .01$. *** $p < .001$.

용주·자영업자를 유지(G33)한 유형도 상용고유지 유형(G11)에 비하여 가계소득이 유의하게 감소할 가능성이 높았다.

다른 변수를 통제했을 때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이 가계소득 증감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가구주의 연령이 1998년 30대인 경우에 비해 4·5·60대의 경우 가계소득이 유의하게 감소할 가능성이 높았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고졸인 경우에 비해 전문대졸이상인 경우 가계소득이 유의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외환위기 이후 30대에 비해 4·50대의 증년층과 60대의 고령층 가계의 재취업 기회가 적어 가계소득의 감소 가능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고졸 가구주 가계에 비해 전문대졸이상의 고학력자의 근로조건이 좋아 가

계소득 증가 가능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변수를 통제했을 때 가계취업특성이 가계소득 증감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가계취업자수가 감소한 경우에 비해 증가한 경우 가계소득이 유의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외환위기 이후 다가구원의 소득창출전략이 가계소득의 감소 가능성에 대해 완충기능을 한 것으로 보인다.

4.4.2. 외환위기 이후 가구주의 종사상지위 변화유형과 인구학적 특성이 가구주소득 증감여부에 미치는 영향

다른 변수를 통제했을 때 가구주의 종사상지위 변화유형

이 가구주소득 증감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가구주의 종사상의 지위가 1998년 - 2002년 상용고로 유지한 유형(G11)에 비해 1998년 상용고에서 2002년에 임시·일용고로 이동했거나 1998년 고용주·자영업주가 2002년에 상용고로 이동한 가구주의 소득이 유의하게 감소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상용고에서 임시·일용고로 고용이 불안정하게 되어 가계소득의 감소 가능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비임금근로자인 고용주·자영업자에서 임금근로자인 상용고로의 이동도 직업지위 또는 사업체규모에서 소득이 낮은 곳으로 이동하여 가구주소득의 감소 가능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98년 임시·일용고에서 2002년에 상용고로 이동한 가구주의 소득은 유의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고용의 안정성이 높아져 가구주소득의 증가 가능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가구주가 여성일 경우 남성일 경우에 비해 가구주소득이 유의하게 감소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외환위기 이후 핵심근로자인 남성근로자에 비해 여성근로자는 주변근로자로서 근로조건이 열악하여 가구주소득의 감소 가능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가구주의 연령이 1998년 당시 30대에 비해 20대인 2002년 가구주소득이 유의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1998년 당시 50대 이상인 경우 2002년 가구주소득이 유의하게 감소할 가능성이 높았다.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고졸인 경우에 비해 전문대졸 이상인 경우 가구주소득이 유의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았다. 1998년 당시 30대에 비해 20대 청년층에게는 근로조건이 좋은 직장으로서의 재취업기회가 용이하여 2002년의 가구주소득 증가 가능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30대에 비해 50대 중년층과 60대 장·고령층 재취업자에 대한 거부감이 커서 근로조건이 열악한 곳으로 하향취업했거나 비취업자로 되어 가구주소득이 감소할 가능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고졸 가구주에 비해 전문대졸이상의 고학력자의 경우에는 근로조건이 좋은 직장으로서의 이동기회가 많아 가구주소득이 증가할 가능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V. 결론

이 연구는 '고성장·저실업 구조'가 붕괴된 외환위기 이후 가구주의 종사상지위 변화유형이 가계소득과 가구주소득 증감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외환위기 이후 가

구주의 종사상지위 변화유형, 인구학적 특성 및 가계취업특성이 가계소득 증감여부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는가를 실증분석함으로써 외환위기의 충격이 가구주의 종사상지위 변화유형의 어느 집단, 어느 연령 집단 또는 교육수준 집단에 더 심각하게 미쳤는지를 파악하여 집단별로 가계의 경제적 복지 증진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하여 한국노동패널(KLIPS) 제1차년도(1998년)와 제5차년도(2002년) 패널표본 5,000가구 중 두 시점에 가구주가 취업한 2,578명을 최종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여 일원분산분석과 이항로지분석을 행하였다.

연구결과 요약과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환위기 이후 가구주 종사상지위 변화유형의 특징을 보면, 1998년 상용고, 임시·일용고, 고용주·자영업자에서 2002년에 비취업상태가 된 실직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임금근로자인 1998년 상용고의 일부는 2002년 임시·일용고로 비정규직화하거나 1998년 고용주·자영업자는 비임금근로자에서 2002년에 상용고 또는 임시·일용고의 임금근로자로 이동하였다.

둘째, 외환위기 이후 가구주의 종사상지위 변화유형에 따른 가계소득과 가구주소득의 차이를 보면, 가구주가 1998년에 임시·일용고에서 2002년에 비취업자가 된 유형의 가계소득이 전체유형의 최하위였다. 즉, 가구주가 고용이 불안정한 임시·일용고에서 일자리를 잃어 비취업자가 된 유형의 소득상황이 가장 열악하였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외환위기 이후 가구주의 종사상의 지위변화와 인구학적 특성 및 가계취업특성이 가계소득 증감여부에 미친 영향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가구주의 종사상의 지위가 1998년에 상용고, 임시·일용고, 고용주·자영업자에서 2002년에 비취업자가 된 유형들의 가계소득이 1998년에서 2002년 사이에 상용고 유지유형에 비하여 감소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외환위기의 충격으로 인한 가장의 실직이 가계소득 감소의 주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가구주의 종사상의 지위가 1998년에 임금근로자인 상용고에서 2002년에 임시·일용고로 변화한 경우는 가계소득이 1998년에서 2002년 사이에 상용고 유지유형에 비하여 감소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임금근로자 내의 고용의 불안정성의 심화가 가계소득의 감소에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1998년에 비임금근로자인 고용주·자영업자에서 임금근로자인 상용고로 이동한 유형들의 가계소득이 상용고유지유형에 비하여 감소할 가능성이 높았다. 한편 임금근로자인 상용고에서 비임금근로자인 고용주·자영업자로의 이동하거나 고용주·자영업자를 유지한 유형도 상용고 유지유형

에 비하여 가계소득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비임금근로자에서 임금근로자로 이동하거나 반대로 임금근로자에서 비임금근로자로 이동하는 경우와 고용주·자영업자로서 비임금근로자로 남아 있는 경우 모두 외환위기의 충격으로 가계소득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다만 한국노동연구원의 패널데이터는 고용주와 자영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내 사업을 하는 사람”으로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노동연구원, 2005) 고용주와 자영업자의 각각의 비중을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고용주와 자영업자의 피고용자수 등을 감안하여야 비임금근로자와 임금근로자 사이의 변화 유형에서의 가계소득 유지와 증가의 어려움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외환위기 이후 가구주 연령이 30대인 가계에 비하여 40·50대 장년층과 60대 이상 고령층과 전문대졸이상에 비하여 고졸이하의 저학력 가구주 가계의 소득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저학력과 장년·고령층 가계에 외환위기의 타격이 컸음을 알 수 있게 해주었다.

(3) 외환위기 이후 가계취업자수가 많아졌을 경우 가계소득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다가구원 소득창출전략이 가계소득의 감소 가능성에 완충기능을 한 것임을 보여준 것이다.

넷째, 외환위기 이후 가구주의 종사상의 지위변화와 인구학적 특성이 가구주소득 증감여부에 미친 영향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가구주의 종사상의 지위가 1998년에서 2002년 사이 상용고를 유지한 유형에 비해 1998년 상용고에서 2002년 임시·일용고로 이동한 유형의 가구주소득이 유의하게 감소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 점은 가구주의 고용의 안정이 가구주소득의 유지 또는 향상에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가구주의 종사상의 지위가 상용고 유지 유형에 비해 1998년 비임금근로자인 고용주·자영업자가 2002년 임금근로자인 상용고로 이동한 가구주의 소득이 유의하게 감소할 가능성이 높았다. 한편 1998년 임시·일용고에서 2002년 상용고로 변화한 유형의 가구주소득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것은 그 반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용의 안정성이 가구주소득의 증가 가능성의 주요변수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2) 외환위기 이후 가구주 연령이 30대인 가계에 비하여 50대 이상의 장·고령층과 전문대졸이상에 비하여 고졸이하의 저학력 가구주의 소득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가계소득증감 가능성에서와 동일하게 저학력과 장년·고령층 가계에 외환위기의 타격이 컸음을 보여준 것이다. 반면에 가구주의 연령이 1998년 당시 30대에 비해 20대의 2002년 가구주소득이 유의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았

다. 이러한 결과는 1998년 당시 30대에 비해 20대 청년층에게는 근로조건이 좋은 직장으로서의 재취업기회가 용이하여 2002년의 가구주소득이 증가할 가능성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성가구주일 경우 남성가구주에 비해 가구주소득이 유의하게 감소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외환위기 이후 핵심근로자인 남성근로자에 비해 여성근로자는 주변근로자로서 근로조건이 열악하여 가구주소득의 감소 가능성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도출된 결론에 근거하여 몇 가지 가계경제와 고용정책을 위한 제언을 하려고 한다.

첫째, 가계는 외환위기와 같은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가계가 소득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려면 다양한 소득원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고용의 불안정성 대비를 위한 가계재무설계가 필요하며 가구주 근로소득 이외의 다양한 소득원을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경제위기가 장기화될 경우 이는 청년실업의 장기화를 초래하고 장년층의 조기퇴직연령이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 대비한 가계의 다양한 소득원천의 개발과 확보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외환위기의 충격으로 인하여 가구주가 상용고, 임시·일용고와 같은 임금노동자 또는 고용주·자영업자와 같은 비임금근로자에서 일자리를 잃고 비취업상태된 가계의 가계소득의 회복과 향상을 위해서는 비취업자가가구주가 일자리를 갖도록 하기 위한 다각적 고용정책이 필요하다. 임금근로자 중에서 가구주가 상용고에서 임시·일용고로 된 가구주의 소득 유지와 향상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고용이 안정될 수 있는 고용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외환위기의 충격으로 고용주·자영업자를 유지하거나 상용고에서 고용주·자영업자로 이동한 가계의 가계소득이 감소한 점을 미루어 볼 때, 고용보험이 비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임을 시사한다.

넷째, 실질적으로 가계소득과 가구주 소득을 유지하고 향상시켜 가계의 경제적 복지수준을 증진시키려면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할 때 취약계층의 선정기준을 소득, 직업, 성별, 경력단절 등 중에서 한 가지 기준만 사용하지 말고 성별, 교육수준, 연령, 종사상의 지위 등의 지표를 복합적으로 고려한 통합적인 맞춤형 고용정책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일차적으로 외환위기 초기 5년간의 종사상의 지위변화유형이 가계소득 증감여부에 미치는 현상을 실증분석한 것으로서의 제한점이 있다. 앞으로 이러한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2002년 이후 2008년 세계금융위기 직전과 그 이후를 구분한 연구를 진행하여,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가계의 양극화의 심화와 중산층의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연구를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참고문헌

- 강이주, 성영애(1999). 가계소득감소 경험여부가 가계의 경제적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학연구**, 10(2), 71-83.
- 구인회(2002). 빈곤층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빈곤이행: 경제위기 이후의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48, 82-112.
- 김지경, 조유현(2003). 젊은 여성의 첫 출산 후 노동시장 복귀에 관한 분석. **노동경제논집**, 26(3), 181-207.
- 김양희, 곽인숙, 윤정혜, 이승미, 정현숙, 최규련 외(1999). 가정의 실직 전 직업유형에 따른 실직가정의 생활실태와 대처방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2), 93-104.
- 성영애(2003). 가구주 직업에 따른 연령별 가계재무구조의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41(1), 39-58.
- 성영애(2006). 패널자료를 이용한 가계부채 변동 관련 요인 분석. **소비자학연구**, 17(4), 39-60.
- 성영애(2008). 패널자료를 이용한 가계적자탈출과 진입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19(2), 115-134.
- 소연경(2000). 도시가계의 소득계층별 소비지출구조 분석- IMF 이전과 이후 비교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8(12), 1-14.
- 양세정(2002). 경제위기상황에서의 소득감소에 따른 가계 경제구조 대응행태 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6), 81-93.
- 유길상, 어수봉, 정인수, 강순희, 금재호, 김재구 외(1998). 고실업시대의 실업대책.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보고서.
- 윤정혜, 성영애(1998). 한·일·미가계의 소비구조 비교를 통한 한국가계의 소비표준 설정 방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3), 155-168.
- 윤진호(1990). 한국의 불안정취업층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윤진호(1998). IMF시대의 노동시장과 고용위기의 극복방안. **황해문화**, 18, 46-71. 새얼문화재단.
- 윤진호(2002). IMF경제위기와 인천지역 노동시장의 변화. **경상논집** 16(2), 인하대학교 산업경제연구원.
- 이성균(2001). 경제 위기와 노동시장 지위변동: 계급적 지위와 종사상 지위를 중심으로. **산업노동연구**, 7(2), 67-96.
- 이성림(2009). 경제위기 전후 가계경제의 변화와 진단.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소비자교육의 방향**, 공정거래위원회, (사)한국소비자교육지원센터 정기심포지엄, 37-64.
- 장지연(2001). 비정규직 노동의 실태와 쟁점: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경제와 사회**, 2001년 가을호 통권 51호, 68-96.
- 채구묵(2002). IMF 경제위기 이후 비정규근로자의 증가원인 분석 및 과제. **한국사회학**, 36(5), 143-169.
- 최현수(2002). 경제위기 이후 도시노동자가구의 빈곤역동성 및 빈곤기간 연구. **보건사회연구** 22(1), 37-67.
- 통계청(1997-1999). 경제활동인구조사 1997-1999. http://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Search.jsp?idx_cd=1063&stts_cd=106301&clas_div=C&idx_sys_cd=&idx_clas_cd=1.
- 한국노동연구원(2005). 한국노동패널 1~6차년도 조사자료 Code Book.

접 수 일 : 2009년 10월 13일
 심사시작일 : 2009년 10월 14일
 게재확정일 : 2009년 11월 10일